

AIDS 상식

암 이후 인류질병 중 최악으로 여겨지는 에이즈는 그 어느 것보다 편견과 무지가 강한 질병이다.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일반인들의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막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질병에 또 다른 희생자를 낳고 있다. 에이즈는 다른 전염병과는 확연히 다르다. 에이즈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으면 에이즈의 공포로부터 평생 자유로울 수 있다.



에이즈란 무엇인가?



에이즈(Acquired Immuno Deficiency Syndrome : 후천성면역결핍증)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진행성 증후군이다. HIV에 감염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손상되고, 그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치명적인 감염증이나 암을 일으켜 에이즈 환자로 진행되게 된다.

HIV에 감염되면 질병에 대해 인체가 스스로 저항하고 통제하는 면역기능을 상실하여 질병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이 바이러스는 뇌와 기타 기관까지 침투가 가능하여 운동이나 기억력, 인체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에이즈 환자들의 사망원인은 단순히 HIV에 감염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HIV가 인체에 침투하여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점차 감소시켜 어떠한 질환이 발생해도 이를 막아낼 수 없는 상태로 만들기 때문이다.

체외에서의 HIV 생존기간은?

HIV는 인체 내에서는 치명적으로 작용하지만, 인체 밖에서는 오래 생존하지 못한다. 특히 HIV가 존재하는 혈액이라 하더라도 혈액이 말라 있으면 바이러스는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이 바이러스는 인체 내로 직접 침입하지 못하면 감염력이 없고, 공기흡입에 의해 전파되지도 않는다.

HIV 감염경로는?



HIV는 감염인의 혈액, 정액, 질분비물, 모유를 통해 감염된다.

주된 경로는 다음과 같다.

- HIV 감염인과의 성관계
-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 주사바늘을 같이 사용
- HIV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은 경우
- 감염된 여성의 임신이나 분만도중에 혹은 감염된 산모의 수유를 통해

○ 의료행위 중의 사고

우리나라의 경우 97%이상이 감염인과의 성관계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이즈의 초기증상 (급성감염기)은?



에이즈에 감염되면 3내지 6주 후에 독감과 비슷한 증상, 즉 목이 아프고, 전신이 쉬시고, 구토, 설사가 나타나며 일부에서는 임파선이 붓거나 피부에 붉은 반점이나 두드러기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1주 내지 2주가 지나면 저절로 사라진다.

하지만 초기증상은 여타 다른 질병에서의 초기증상과 겹치는 부분이 많으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초기증상만으로 에이즈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에이즈검사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HIV검사는 혈액검사로 혈액내의 HIV항체 유무 조사와 같은 방법이 이용된다. 만약 HIV에 대한 항체가 있다면, HIV에 감염되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HIV에 노출된(위험행위) 지 12주 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 전에 검사할 경우 HIV항체가 미형성되어 감염이 되었더라도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에이즈예방법은?



감염인의 체액(정액, 질분비물, 혈액, 모유)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내의 경우 대부분 감염인과의 성관계를 통해 에이즈에 감염되므로 신뢰할 수 없는 상대와의 성관계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콘돔이 감염위험을 크게 줄이지만, 100% 안전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콘돔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에이즈 편견들

에이즈는 감염인의 체액(정액, 질분비물, 혈액, 모유)으로만 전파된다. 그러므로 감염인과 식사를 같이 하거나 식기를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감염되지 않는다. 또한 수영장이나 대중목욕탕을 함께 이용할 수도 있으며 재채기, 기침, 땀, 눈물 등으로 전파되지 않는다.